



대한생명, 중국 합작 생명보험회사 설립 인가 취득

최 원 선임연구원

- 대한생명은 중국 저장(浙江)성 정부 산하 국영기업인 저장성국제무역그룹과 합작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고 2012년부터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임.
 - 대한생명은 11월 9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합작 생명보험회사 설립 인가를 취득하였다고 밝힘.
 - 이번 중국 합작 생명보험회사 설립 인가 취득은 국내 생명보험회사 중 삼성생명에 이은 두 번째이며, 이번 인가 취득으로 대한생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합작회사 설립인가를 취득한 최초의 외자계 보험회사가 됨.

- 대한생명은 국내 생명보험회사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합작 생명보험회사 경영을 담당하고, 자본금 등 제반사항은 저장성국제무역그룹과 합의하여 결정할 전망이다.
 - 저장성은 중국 4위의 경제 규모로 풍부한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어 생명보험 사업에 적합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 중국 측 파트너인 저장성국제무역그룹은 국유자산 관리와 무역업이 주력 업종인 기업임.
 - 설립이 예상되는 합작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경영은 대한생명이 담당하고, 본사는 저장성 최대 도시인 항저우(杭州)에, 자본금은 5억 위안(약 900억 원), 출자는 대한생명과 저장성국제무역그룹이 각각 50%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.
 - 대한생명은 영업조직,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2년 저장성을 중점적으로 공략한 뒤 최대한 빨리 중국 전 지역으로 영업 기반을 넓혀갈 계획임.

- 최근 동아시아, 동남아 신흥시장 등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보험회사로의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한생명의 중국 진출 성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.

(대한생명, 중국 생명보험시장 내년 진출, 동아일보 등, 11/9)